

26일짜리 전국일주를 통해서 느낀 나의 일본

유병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종조모께서 일본인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문화를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관심이 여행으로 이어졌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에 여행한 횟수는 총 8회이며, 그 중에서 일본 본토 전국 여행은 두 번이다. 처음에 했던 전국 여행은 2008년 규슈의 후쿠오카부터 일본의 수도 도쿄까지 기차와 버스로만 다닌 17일짜리 반쪽 전국 여행이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해외여행이었으며, 그러다, 2017년에 두 번째 전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규슈 후쿠오카에서 시작하여 홋카이도 비에이에서 종료된 26일짜리 완전한 전국 일주를 하였다.

내가 다닌 완전한 전국 일주의 행선지는 다음과 같다.

후쿠오카→벳부→유후인→가고시마→이부스키→사세보→이즈모시→다카마츠→오사카→교토→도쿄→
요코하마→가마쿠라→하코다테→삿포로/오타루→후라노→비에이



이런 여행을 계획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완전한 전국 일주로 완성하고 싶었다. 그리고 처음에 했을 당시, 돈이 별로 없어 많이 접하지 못했던 일본음식을 요리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하니, 지역별로 접해보자 했던 취지도 있었다.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다짐하고 4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실행에 옮긴 것이다.

내가 일본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전통적이고도 정제된 자연스러움과 멋, 그리고 일본사람들만의 인심이다.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과정에서 나에게 예상 밖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즈모시에서 다카마쓰로 가는 도중, 10만엔과 카드가 든 다이어리 지갑을 분실했는데, 옆 좌석에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그 다음날 오카야마에서 지겨운 5시간 걸리는 첫 열차 타고 이즈모시 경찰서에 가서 찾았던 일, 나는 이때 ‘얼마나 다행인가~!’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려다. 이부스키에서 가고시마 숙소로 돌아가는 도중에 폭우로 열차가 끊겨 버스 타고 1천엔 주고 2시간 동안 입석으로 갔던 일,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비어서 긴축으로 여행한답시고 하코다테 역 근처에서 갈매기 똥 맞아가며 첫 열차 올 때까지 밤새웠던 일, 내가 돈 모자라서 비박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페이스북에서 소통하는 일본인 여사님이 내가 그렇게 거절해도 1만 5천엔의 거금을 주며 홋카이도 여행 잘해보라고 격려 받은 일...

이러고 보면 나를 도와주었던 일본사람들도 한국사람처럼 정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테마에와 혼네가 확연히 구분되는 일본사람인 줄 알았건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후하지는 않아도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 일본사람들이었다. 그러기에 나중에 내가 최근에 계획한 세 번째 전국 일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다. 반대로, 일본인 친구가 제주도에 오면 내가 현지 가이드가 되어 이들에게 제주도의 맛과 멋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실제로도 ‘민간외교관’ 자격증이 있지만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일본을 ‘가까이하는 절친 같은 나라’라고 부르고 싶다.